

양림동 배경... 서서평 선교사 양자 서요셉 이야기

광주시립극단 '양림 in 광주' 공연
22~2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창작회공공모 당선작, 연극으로

"이곳에 다시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누군가 나팔을 불 때,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해줘.. 기억은 '생명'이야."

양림동을 배경으로 광주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한편의 드라마극이 펼쳐진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극적 상상력과 탄탄한 서사가 맞물려 연극으로 되살아난 것.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원광연·극단)이 '양림 in 광주'를 오는 22~2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22일 오후 2시 30분, 오후 7시 30분을 비롯해 23일(오후 3시·오후 7시 30분), 24일(오후 3시) 총 5회 상연.

극단이 2020년 진행했던 '제1회 창작회공공모' 당선작 '양림(楊林·이정아 원작)'을 원광연 감독, 유파씨어터 김하정 대표가 공동으로 각색·연출한 작품이다.

앞서 2021~2022년 '양림'이라는 제목으로 동산아트홀에서 관객을 만난 적 있으나, 무대 세트 등을 최소화하고 대본 리딩에 중점을 뒀던 입체낭독극 형식이었던 점에 이번 공연과 차이가 있다. 무대효과, 미장센을 가미해 공연 예술로서 매력을 배가한다



광주시립극단이 정기공연 '양림 in 광주'를 오는 22~2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낭독연극 '양림' 당시 공연 장면. <광주시립극단 제공>

는 계획이다.

극은 서서평 선교사의 양자 서요셉 이야기를 조망한다.

'조선의 성녀'로 불렸던 서서평은 양림에 터를 잡고 한센병 환자들과 결인, 소외당한 여성과 고아를 돌보던 인물이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하나가 이번 연극의 주인공 '요셉'이다.

극 중 요셉은 어머니를 잃고 양림을 떠난 뒤 방향하다 태평양 전쟁에 징용된다. 이후 한 팔을 잃고 절망한 채 고향에 돌아왔으나, 분노에 휩싸이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다. 이처럼 운명으로부터

바림받은 자가 구원자로 변모한다는 측면은 성서 '창세기' 중 '요셉' 대목을 겹쳐 보게 한다.

함께 공부하던 박순이가 남편의 죽음으로 괴로워하자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요셉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박순이는 서서평 선교사의 유지를 기억하며 양림에서 고아를 거두고 돌보던 인물이다.

작품은 과거 시점(1921~1943)을 파편적으로 묘사하는 1~2막과 서요셉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3막으로 나뉜다.

이 같은 구성에 대해 원광연 예술감독은 "1~3막을 역순행과 순행적 구성 두 파트로 나눈 것은 주요 인물인 서요셉과 박순이의 심리 변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대비의 일환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극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 9월 남자 배역 10명(서요셉, 최홍중, 서커스 단장, 김생욱 등)과 여자 배역 7명(서서평, 박애신, 박순이 등)을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조정훈(서요셉 역), 김수옥(박순이)을 비롯해 나상문(최홍중), 정경아(유화례), 황옥선(박애신), 양선영(서서평), 최이노(이선생) 배우가 캐스팅됐다. 이외 이영한, 정일행, 김민성, 양선아, 최현정, 조홍일, 김여름, 정유정, 손근호 배우가 출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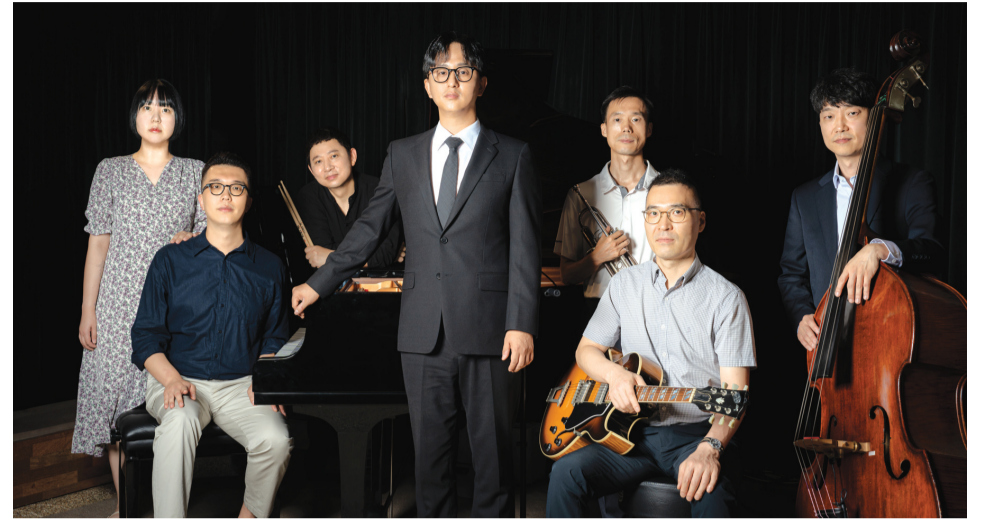
김하정 연출은 "광주는 역사 속에서 개인의 희생을 불사하더라도 이로운 일에 앞장섰으며, 성숙한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에 고무돼 있었다"며 "연극 '양림 in 광주'를 통해 광주 근현대사를 돌아보고 정의에 목숨을 내놓았던 '광주 정신'을 오늘날 이 땅 위에 재현하려 한다"고 했다.

전석 1만 원, 13세 이상 관람 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출연진들의 컨셉샷.



'재즈스' 멤버들.

<재즈스 제공>

'보통 사람들의 재즈' 즐겨볼까

재즈스 연주회 'Jazz Together', 17일 북구문화센터

'보통 사람들의 재즈'를 모토로 활동해 온 '재즈스'는 재즈를 사랑하는 광주 직장인들로 이루어진 아마추어팀이다. 전공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이들은 정통 재즈를 연주하겠다는 목표 아래 모였다.

재즈스(리더 조태희)가 연주회 'Jazz Together'를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펼친다. 광주사회인재즈협회가 마련한 공연으로 즉흥성과 대중성이 돋보이는 재즈 스탠다드 곡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리드미컬한 'Night And Day'로 시작하는 공연은 'My Favorite Things', 'For Sentimental Reasons'로 이어진다. 'All The Things You Are' 등 감미로운 멜로디도 낭만을 선사한다.

재즈 특유의 우울하며 자유분방한 느낌을

자아내는 'Lullaby Of Birdland'와 'No More Blues'도 울려 퍼진다. 이밖에 'Tea For Two', 'Everything Happens To Me', 'Cry Me A River'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피아니스트 조태희, 보컬리스트 김영준·정유진이 출연할 예정이다. 기타는 Jim Hun, 트럼펫은 이승일이 맡으며 박재만이 베이스, 최희웅이 드럼을 연주한다.

재즈스 조태희 리더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오직 '재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무대를 선보이고 싶다"며 "재즈에 깃든 여운과 자유로운 해석을 관객들에게 전하며 함께 즐기는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무료 공연. 구글 폼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 교육아카데미... 이종섭·오지호 조명

이종섭, 오지호는 한국 미술사에 의미미한 성취를 남긴 거장들이다. 지금도 두 화가의 작품과 예술적 삶은 후학들에게 예술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두 거장의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이 운영하는 하반기 교육아카데미강연프로그램에서 두 화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강의는 11월 2일, 16일, 30일이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이종섭미술관 전은자 학예사가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이지호 관장은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문화 예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육아카데미를 기획·운영하게 됐다"며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 미술사의 두 거장의 작품을 통해 의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연은 전시·서적 등과 연계해 다채로운 형식으로 진행된다.

2회차(11월 3일 오후 2시) 강연은 소설가 김탁환이 나서 이종섭의 작품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조인호

16일과 30일에는 한국 인상주의의 선구자 '오지호' 화백의 작품세계를 조명한다.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가 하반기 개막하는 전남도립미술관 기획전 '인상주의와 오지호: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를 일부 연계한 주제로 강연한다. 작가가 영향받았던 프랑스 인상주의와 더불어 오지호의 삶과 작품활동 등 그의 예술세계 전반을 심도 있게 탐구할 예정이다.

강연 신청은 네이버 사전 예매와 현장 발권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15일 '인상주의와 오지호: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전을 개막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묵 담채의 은은한 향기 박광순 화가 개인전 성료

무등갤러리에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박광순 화가의 개인전이 성료했다.

국화 향기 그윽한 계절에 펼쳐진 이번 전시는 지난 40년 간 갈고 닦은 한국화에 대한 열정을 풀어놓는 자리였다.

박 작가는 '꽃', '추경', '설경', '노란 불꽃경', '소나무와 꽃', '하경' 등 모두 80여 점을 선보였다. 계절 풍경, 산과 바다, 청동오리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은 갈고 닦은 연마의 흔적과 그림에 대한 열망 등이 배어 나왔다. 다양한 수묵담채의 작품은 우리의 옛 정서를 환기하는 한편 저마다 은은한 향기를 발했다.

'소나무와 꽃'은 꽃이 핀 소나무 군락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굵은 소나무의 자태와 세월의 연륜이 담긴 굵은 꺾임, 주위에 에둘러 핀 붉은 꽃들은 맞닿으니 조화를 이룬다.

박 작가는 "아직은 부족함이 많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서 큰 기쁨과 설렘의 시간이었다"며 "만추의 계절 작품과 함께 은은한 국화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광순 화가는 2011년 대동갤러리 전시를 비



'추경'

롯해 실경 대작전, 대한민국 한국화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한국화 특선,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한국화 우수상, 광주시 미술대전 한국화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